

한국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태도 유형: Q방법론적 접근

조계화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Types of Attitudes toward a Successful Life of Korean Nursing Students: A Q-Methodological Approach

Jo, Kae-Hwa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ttitudes toward a successful life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science. **Method:** The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s was used. The 32 selected Q-statements from each of 36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a shape of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 QUANL PC program. **Result:** Four types of successful life attitudes for research subjects in nursing science were identified. Type I is purpose achievement type, Type II is calling fullness type, Type III is balance maintenance type, and Type IV is happiness eagerness typ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different approaches to nursing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are recommended based on the four types of successful life attitudes.

Key words: Nursing, Student, Life, Attitud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끊임없이 성공적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말 사전에 성공(成功)이란 ‘뜻을 이룸’, ‘실패의 반대’, ‘부(富)나 사회적 지위를 얻음’, 혹은 ‘출세’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Korean languag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2006), 성공과 같은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나 대리학습과 같은 매개된 경험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Park, 2000). 일반적으로 성공 의식은 통제 신념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개인차가 있으나(Kishor, 1983) 흔히 자아실현, 자아성장과 같은 의미로 표현된다.

성공을 위한 자기성장의 의미에 대하여 Patterson (1980)은 자기 성장을 최적의 심리적 적응, 최적의 심리적 성숙, 완전한 일치, 그리고 경험에의 완전한 개방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반면 Rogers (1961)는 인간을 하나의 존재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becoming)으로 보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경험을 통한 개방의 증대, 실존적 삶의 태도 증가,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의 증대로 보았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은 보다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인간성을 신뢰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성장은 개인과 개인적 성취를 강조하며 의미있는 변화를 중시 한다. 본질적으로 성장이란 바람직한 변화나 원하는 방향으로써의 개인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즉 능률적이며 유능해지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이고 통찰력이 있으며 이해력과 함께 신중성을 구

주요어 : 간호, 학생, 성공, 삶, 태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o, Kae Hwa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5 Fax: 82-53-621-4106 E-mail: jokw@cu.ac.kr

투고일 : 2007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2월 8일

비할 때 성장했다고 말하며 자기성장을 이룬 삶을 성공적 삶이라 부른다(Park, 2000).

인간이 삶에 대해 지니는 태도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삶의 질이나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대한 태도는 간호 경험의 방향을 제시하고, 간호 전문직의 질이나 의미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대학생들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투신하려고 하나 성공의 진정한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지 못한 경향이 있다.

성인 입문기와 초기의 단계는 그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세대 집단은 특징적인 가치, 태도, 신념, 행동양식, 생활방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는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하나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써 작용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자아는 자신이 속한 맥락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한다. 현재 한국의 대학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은 ‘신인류’ 세대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인간관계를 사이버 공간 속에서 마치 현실 공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확장시킨 집단이다. 이 공간에서의 만남은 선형적 사고의 몰락과 카오스적 정체성의 부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Hwang, 1999).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성공은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밀도있게 조명되는 국면이며 또한 집단이나 개인의 현 위치를 제시해주는 사회적 지표이다(Han, 1988).

본 연구는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하고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년 후기의 간호대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성공적 삶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정 세대에 속하는 개인이 가지는 가치와 태도, 규범을 결정하는 행동의 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대 학생으로서 이루어야 하는 발달 과업이나 연령 규범, 성취 목표들이 상호작용하여 서로 비슷한 생애 경로(life course)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공적 삶의 태도 연구는 그 의의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보고된 대학생의 성공 관련 연구는 진로결정(Koh, 1992), 자아개념(Jung, 1991), 성 역할 관련요인(Lim, 1994) 등이며 간호학분야에서 대학생의 성공적 삶을 다룬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간호에서는 개인의 신념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간호실무가 때때로 간호사의 신념에 도전을 하기 때문이다. 간호 전문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간호가 지향하는 목적과 발전방향에 대한 간호 학생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Lee et al., 1992), 간호대 학생의 성공에 대한 인식은 간호의 정체감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 학생 개개인이 갖는 성

공적 삶의 태도는 간호 전문직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제공하므로 미래 간호 전문직의 주역이 될 간호대 학생의 성공상은 간호직의 성공 지표를 정립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과 관련된 현상은 ‘설명’보다는 ‘이해’의 대상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태도를 주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런 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Q방법론은 본 연구 주제에 적합하고 유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특정 사회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의미가 있는 성공 개념을 한국의 간호대 학생의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두어 Q방법론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대 학생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세대(generation) 또는 동년배 집단(cohort group)에 관한 이미지를 성공적 삶이라는 사회적 표상으로 분석하여 한국인의 토착심리의 근원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성공적 삶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태도 유형에 따른 개별적 교육 방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주관적인 태도를 유형화한다.

둘째, 한국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주관적인 태도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Q방법론을 이용하였으며 D시의 C대학병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수행하였다(승인번호: 07-209).

2. 표집 방법

1) Q모집단 및 Q표본의 구성

Q모집단(Q-Population)은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공 태도 구성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관심을 갖게된 배경 및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자료 수집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 도중에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린 다음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은 한국 사이버 대학 가상강좌인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죽음' 강의를 수강 신청한 3개 대학교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2007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과 성공적인 삶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현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공적인 삶과 아름다운 죽음은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등의 6문항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개방형 질문지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지에 덧붙여 좀 더 심도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개별 면담을 수행하였다. 개별 면담은 일 지역의 C대학교 4학년 학생 5명을 선정하여 위에 언급된 질문을 포함하여 성공 관련 교과 내용, 학습 방법, 학습 자료, 간호 전문직 관련 교육을 위한 준비 및 개선책 등에 대해 면담하였다. 이 외에도 성공 관련 선형 연구와 전문서적, 국내외 전문잡지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합하여 총 178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Q표본의 선정을 위하여 준비된 Q모집단을 놓고 성공태도가 범주화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간호학과, 교육학과 교수 2인과 Q방법론 전문가 1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32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2) P표본(P-sample)의 표집 방법

Q방법론은 양적 연구와는 달리 사람이 변인이 되므로 P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 표본이론에 근거하여 표본의 수를 간호학과 학생 총 36명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Q표본의 진술문이 32개이므로 이와 비슷한 표본의 경우에 가장 이상적이

Table 1. Distribution of Q-sample Card

	(Disagree)	(Neutral)					(Agree)		
Score	-4	-3	-2	-1	0	+1	+2	+3	+4
No. of card	1	3	4	5	6	5	4	3	1

라는 점을 고려하였다(Kim, 1992; Stephenson, 1982).

3) Q표본 분류(Q-sorting) 및 자료 분석 방법

Q표본의 분포는 연구 대상자들이 Q표본으로 선정된 32개의 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분포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준비하였다. Q표본 분류는 Q표본을 먼저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의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긍정(부정)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부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 (+4, -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케 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이때 양끝에 놓인 1개씩의 진술문 2개에 대한 선택 이유를 면담을 통해 받아두었다(Table 1).

Q분류과정 전에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기록하게 하였고 한 사람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30~40분이 소요되었다. 코딩은 가장 반대하는 경우를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 5점, 가장 찬성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자료 분석은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32개의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를 구하였다. 그 후 다시 32개의 항목을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유형은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된 것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1. Q유형의 형성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성공에 대한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5.3%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체 변량이 작은 것은 대상자 의견의 다양성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Q연구에서는 주 요인 견해만을 다루는 것을 연구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변량의 크기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각 유형별 변량은 제1유형이 31.7%, 2유형이 14.2%, 3유형이 4.9%, 4유형이 4.5%였다. 제1유형이 31.7%의 설명력

Table 2. Eigen values,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1	Type 2	Type 3	Type 4
Eigenvalues	11.4053	5.1173	1.7792	1.6019
Variance (%)	.3168	.1421	.0494	.0445
Cumulative	.3168	.4590	.5084	.5529

Table 3. Types, Weigh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Type	Subject's No	Factor weight score	Motivation of choice for nursing	Satisfaction of nursing science	School record	Economic state	Religion	Counselor	Future one's work
Type 1 (n=8)	VAR04	.9239	Employment	High	3.5	Poor	Catholic	Friends	C.N
	VAR35	.8963	Beneficial	High	3.7	Middle	Catholic	Relatives	C.N
	VAR28	.6322	Employment	High	3.9	Middle	Catholic	Parents	C.N
	VAR29	.5509	Employment	High	3.9	Middle	Catholic	Friends	N.R
	VAR15	.4763	Employment	Middle	4.1	Middle	Protestant	Parents	C.N
	VAR13	.4059	Employment	High	3.9	Middle	None	B & S	Official
	VAR03	.3626	Employment	Middle	3.7	Middle	None	Friends	I.N
	VAR20	.2899	Dream	High	3.9	Middle	None	Friends	Official
Type 2 (n=11)	VAR27	.8548	Beneficial	High	3.7	Middle	Protestant	B & S	C.N
	VAR23	.8414	Employment	High	4.1	Middle	Protestant	Friends	C.N
	VAR18	.7416	Employment	Middle	3.3	Middle	Catholic	Friends	N.P
	VAR34	.7364	Interest	High	4.3	Middle	Catholic	Friends	H.T
	VAR09	.6836	Dream	High	3.3	Good	Catholic	Friends	C.N
	VAR05	.5536	Aptitude	High	3.9	Middle	Catholic	Parents	C.N
	VAR07	.5221	Advice	High	3.7	Middle	Catholic	Friends	C.N
	VAR10	.4321	Employment	High	3.7	Middle	Protestant	Parents	C.N
	VAR08	.3477	Employment	High	3.3	Middle	Catholic	Senior	C.N
	VAR31	.3353	Aptitude	Very high	4.1	Good	Catholic	Professor	Professor
	VAR24	.3096	Employment	High	4.1	Middle	Catholic	Parents	C.N
Type 3 (n=10)	VAR33	1.0531	Advice	Low	3.9	Poor	Catholic	B & S	C.N
	VAR19	.8549	Employment	Middle	3.5	Poor	None	Parents	Official
	VAR02	.6153	Employment	High	3.5	Middle	Catholic	Friends	C.N
	VAR26	.4822	Score	High	3.3	Good	Catholic	Senior	N.R
	VAR30	.4788	Employment	High	4.1	Middle	Catholic	Friends	C.N
	VAR25	.4709	Advice	High	3.5	Poor	None	Friends	C.N
	VAR01	.3823	Advice	Middle	4.1	Middle	None	Friends	C.N
	VAR21	.3734	Interest	High	3.5	Poor	Catholic	Friends	I.N
	VAR11	.3292	Beneficial	High	3.3	Good	Catholic	Parents	C.N
	VAR22	.2422	Employment	High	4.1	Poor	Catholic	Friends	C.N
Type 4 (n=7)	VAR12	.9363	Employment	High	4.1	Middle	Catholic	Parents	Official
	VAR06	.5273	Employment	High	3.5	Middle	Protestant	Parents	N.R
	VAR17	.3433	Employment	High	4.3	Good	Protestant	Parents	Professor
	VAR14	.3411	Employment	High	4.1	Middle	Catholic	Friends	H.T
	VAR36	.3711	Employment	High	3.1	Good	None	Parents	C.N
	VAR16	.3237	Employment	High	4.1	Good	Catholic	B & S	C.N
	VAR32	.2514	Employment	High	4.3	Middle	Catholic	Parents	Professor

VAR=Variable; C.N=Clinical nurse; N.R=Nursig researcher; I.N=Industrial nurse; B & S=Brothers and sisters; N.P=Nurse practitioner; H.T=Health teacher.

을 가지므로 성공적 삶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Table 2, 3).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아 각 유형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진술문 표본 및 유형별 표준점수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유형별 특성과 해석

연구 대상자의 구성은 제1유형이 8명, 2유형 11명, 3유형 10명, 그리고 4유형 7명의 총 3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factor weight)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prototype) 혹은 이상적(ideal)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함을 의미한다(Table 3).

성공적 삶의 인식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우선 각 대상자들이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또한 개별 진술항목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할 때 Q분류 과정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인 양극단의 의견과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을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 분석 방법에 의해 산출된 대상자의 성공적 삶의 인식에 관한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Q-sample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Q-statement	Z-score			
	Type 1 (n=12)	Type 2 (n=9)	Type 3 (n=4)	Type 5 (n=3)
1. Life with no regret when I look back upon my past in the last breath	-.3	.6	-.2	-.1
2. Life without shame on me	1.4	.3	1.6	.7
3. Life I do the work I want in the job I want	1.0	-.8	1.0	.8
4. Life I get a fruitful and meaning from a work even if it's a small	-.2	.2	-.6	-.7
5. Life I do my best in the given situation	.9	.5	.5	.3
6. Life I do my best in the given role	.6	.4	-.2	.2
7. Life for making efforts to achieve a goal	2.0	-.4	.6	.5
8. Life I take satisfaction on my present position	-.7	-.3	-.9	-.5
9. Unstrained life without any repression	-1.7	-1.1	.8	-2.0
10. Life I can take a look at the thing being exist in me rather than not being exist	-1.0	-.5	-.1	-.9
11. Life I love myself	1.4	1.8	1.6	1.4
12. Life I share my things to people	.6	.8	-.7	-.8
13. Positive life all the time	1.1	1.1	.9	.7
14. Life I leave something for future generation even if it is small	-1.8	-1.4	-2.4	-1.5
15. Beneficial life for people and a society	.4	.4	-1.0	.1
16. Life those around me feel happy thanks to me	.8	.9	-.4	.4
17. Life pursuing value	.2	-.6	-.6	-.0
18. Life I can enjoy delight	.3	.8	.4	-.5
19. Life I find my abilities and improve them	.9	-.4	.8	1.4
20. Life I thank for and live a day faithfully	.5	1.3	-.1	.5
21. Life I can live in peace from conscience in my heart	-.1	.7	.5	.6
22. Life I can have a happy family	.2	1.0	1.2	1.7
23. Economically rich life	-1.7	-1.8	1.1	-.4
24. Life a family is stabilized emotionally	.1	.9	.5	.0
25. Life I can live with my better half until the last breath	-1.1	-.9	-1.1	-.9
26. Life I can live with good health in nature	.4	-.9	-.3	-2.0
27. Humdrum life I live without greed	-1.4	-.1	-1.5	-1.9
28. Life with happy memory I can feel my heart is full and peaceful	.8	.2	.1	1.0
29. Life with harmony of a material wealth and an emotional feeling of satisfaction	-1.1	-.6	1.9	1.4
30. Life with a social position	-1.4	-1.6	-.3	-.8
31. Life being acknowledged from people due to my name and achievements	-8	-2.1	-1.5	1.0
32. Life I can live as getting and realizing the calling and errand from God	-.1	1.7	-1.4	.5

1) 제1유형: 목적달성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형 1에 속한 대상자는 총 36명 중 8명이며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는 취업이 가장 많고, 평균평점이 3.82로 과반수 이상이 학업에 만족하였다. 장래에 대한 조언과 대화는 주로 친구와 하며 희망하는 직업은 임상 간호사가 4명, 공무원 2명, 연구 간호사와 산업 간호사는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삶’,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 반면 제1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후세에 물려줄 아주 작은 하나님께 남겨두는 삶’, ‘무엇에 구속받지 않는 삶’으로 나타났다(Table 5).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1 (N=12)

Q-statement	Z-score
7 Life for making efforts to achieve a goal	2.00
3 Life I do the work I want in the job I want	1.41
2 Life without shame on me	1.40
5 Life I do my best in the given situation	1.13
11 Life I love myself	.99
13 Positive life all the time	.89
25 Life I can live with my better half until the last breath	-1.05
29 Life with harmony of a material wealth and an emotional feeling of satisfaction	-1.14
27 Humdrum life I live without greed	-1.36
30 Life with a social position	-1.45
23 Economically rich life	-1.68
9 Unstrained life without any repression	-1.70
14 Life I leave something for future generation even if it is small	-1.84

로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Z값=1.99)’,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Z값 차이=1.12)’

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만족감이 조화를 이룬 삶(Z값 차이=-1.14)', '내 안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삶(Z값 차이=-1.00)' 순이었다.

유형 1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 대상자 4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이었다. 연구 대상자 4번은 간호학 선택의 동기가 취업이었고 평점평균은 3.5로 부진한 면을 보였으나 선택한 전공에는 만족하는 편이며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은 임상 간호사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때,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꿈과 목적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며 자기발전을 통해 삶을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태도를 소지하여 '목적 달성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소명 충실타입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6명 중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는 취업, 관심, 꿈, 적성에 맞아서, 권고, 혜택이 많아서 등 여러 가지 동기로 나타났다. 이 그룹의 평점평균은 3.77이며 과반수 이상이 학업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장래에 대한 조언과 대화는 주로 친구와 가족과 함께 하며, 희망하는 직업은 임상 간호사가 8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 연구 간호사와 산업 간호사, 교수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 2가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자신을 사랑하는 삶',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삶', '감사하며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삶'이었다. 반면 제2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내 이름과 업적이 남아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삶',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으로 나타났다(Table 6).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삶(Z값=1.70)', '감사하며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삶(Z값 차이=1.32)' 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내 이름과 업적이 남아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삶(Z값 차이=-2.12)',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Z값 차이=-1.82)',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는 삶(Z값 차이=-1.63)' 순이었다.

유형 2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 대상자 27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삶'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는 삶'이었다. 연구 대상자 27번은

Table 6.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2 (N=9)

Q-statement	Z-score
11 Life I love myself	1.83
32 Life I can live as getting and realizing the calling and errand from God	1.72
20 Life I thank for and live a day faithfully	1.32
13 Positive life all the time	1.12
22 Life I can have a happy family	1.01
16 Life those around me feel happy thanks to me	.98
18 Life I can enjoy delight	.89
9 Unstrained life without any repression	-1.09
14 Life I leave something for future generation even if it is small	-1.37
30 Life with a social position	-1.63
23 Economically rich life	-1.82
31 Life being acknowledged from people due to my name and achievements	-2.12

간호학 선택동기가 간호사란 직업에 반해서(너무 좋아서)라고 하였으며 학과 성적은 평점평균 3.7로 전공 학문에 만족하였다. 종교는 개신교이며 대화는 주로 형제자매,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임상 간호사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때,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계획에 따른 것이며 삶의 최종 목표는 절대자의 의도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소지하며, 간호직을 천직으로 삼고 소명 의식을 가지는 그룹으로 나타나 '소명 충실타입'으로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균형 유지형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6명 중 10명이며,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는 취업, 권고, 관심, 성적에 맞춰서, 혜택이 많아서 등 여러 가지 동기로 나타났다. 이 그룹의 평점평균은 3.68로 그룹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과반수 이상이 학업에 만족하고 있으나 타 유형에 비해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다.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는 과반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장래에 대한 조언은 가족에게, 대화는 주로 친구와 나누었다.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임상 간호사가 7명, 공무원, 연구 간호사와 산업 간호사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 3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만족감이 조화를 이룬 삶', '자신을 사랑하는 삶',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3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후세에 물려줄 아주 작은 하나라도 남겨두는 삶', '욕심없이 평범하게 즐기는 삶', '내 이름과 업적이 남아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삶' 등으로 나타났다(Table 7).

제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

Table 7.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3 (N=4)

Q-statement	Z-score
29 Life with harmony of a material wealth and an emotional feeling of satisfaction	1.86
11 Life I love myself	1.59
2 Life without shame on me	1.56
22 Life I can have a happy family	1.17
23 Economically rich life	1.06
3 Life I do the work I want in the job I want	.97
13 Positive life all the time	.93
9 Unstrained life without any repression	.84
8 Life I take satisfaction on my present position	-.92
15 Beneficial life for people and a society	-.96
25 Life I can live with my better half until the last breath	-1.09
32 Life I can live as getting and realizing the calling and errand from God	-1.41
31 Life being acknowledged from people due to my name and achievements	-1.46
27 Humdrum life I live without greed	-1.48
14 Life I leave something for future generation even if it is small	-2.39

로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만족감이 조화를 이룬 삶(Z값 차이=1.86)’,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Z값 차이=1.06)’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후세에 물려줄 아주 작은 하나라도 남겨두는 삶(Z값 차이=-2.39)’,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삶(Z값 차이=-1.41)’, ‘인생의 반려자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함께 하는 삶(Z값 차이=-1.09)’ 순이었다.

유형 3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 대상자 33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만족감이 조화를 이룬 삶’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삶’ 이었다. 33번 대상자는 자라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게 자라 본인에게 성공은 물질적으로 풍요함으로써 정신적 만족이 함께 조화를 이룬 삶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어느 한 가지만 치우치는게 아니라 물질과 정신적 만족 두 가지를 갖춘 균형적 환경에서 산다면 성공적이라는 태도를 소지하여 ‘균형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4) 제4유형: 행복 추구형

제4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6명 중 7명으로 가장 작은 그룹이며 그룹원 모두가 취업을 간호학 선택의 동기로 꼽았다. 평점평균은 3.92로 그룹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전원이 학업에 만족하였다. 집안의 경제 사정은 ‘좋다’ 가 3명, ‘보통’

Table 8.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4 (N=10)

Q-statement	Z-score
22 Life I can have a happy family	1.71
11 Life I love myself	1.40
19 Life I find my abilities and improve them	1.38
29 Life with harmony of a material wealth and an emotional feeling of satisfaction	1.37
28 Life with happy memory I can feel my heart is full and peaceful	1.00
31 Life being acknowledged from people due to my name and achievements	.95
3 Life I do the work I want in the job I want	.82
10 Life I can take a look at the thing being exist in me rather than not being exist	-.93
14 Life I leave something for future generation even if it is small	-1.54
27 Humdrum life I live without greed	-1.95
9 Unstrained life without any repression	-1.98
26 Life I can live with good health in nature	-2.04

이 4명으로 전반적으로 중상층으로 보이며 장래에 대한 조언과 대화는 주로 부모와 함께하였다.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임상 간호사가 2명, 교수 2명, 공무원, 연구 간호사, 보건교사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 4가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 ‘자신을 사랑하는 삶’, ‘자신의 능력을 발견해 향상시키는 삶’ 등이었다. 반면 제4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사는 삶’, ‘무엇에 구속받지 않는 삶’, ‘욕심없이 평범하게 즐기는 삶’ 등으로 나타났다(Table 8).

제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Z값=1.71)’, ‘자신의 능력을 발견해 향상 시키는 삶(Z값=1.37)’ 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사는 삶(Z값 차이=-2.03)’, ‘무엇에 구속받지 않는 삶(Z값 차이=-1.98)’, ‘욕심없이 평범하게 즐기는 삶(Z값 차이=-1.94)’ 순이었다.

유형 4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 대상자 12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주위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삶’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무엇에 구속받지 않는 삶’ 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4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정에서의 행복과 안정을 성공적 삶의 지표로 삼고 남과의 나눔의 삶을 지향하고 타인의 마음을 생각하는 가정적 행복에 성공적 가치를 부여하여 ‘행복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논 의

성인 초기에 속하는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의 특성으로 인해 친구, 성, 경쟁, 협동, 일 등과 같은 의미있는 관계를 통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공의식을 지각하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신인류 세대에 속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혼란으로 인해 개인주의적 가치를 당연히 여기는 세대 특성을 갖는다. 간호대 학생 역시 이러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성공 태도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는 곧 간호 전문직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 학생의 성공 태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성공에 관한 간호대 학생의 주관적 태도 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성공에 관한 간호대 학생의 태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본 연구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은 목적 달성형, 소명 충실향, 균형 유지형, 행복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1유형은 목적 달성형으로 성공의 목표 점을 학업성취뿐 아니라 직업에서의 성공, 만족스러운 자기계발을 내포하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유형은 성공이란 목표 아래 힘든 자기조절과 노력 경향성을 성공 지표로 강하게 부각시켰는데, 성공과 관련된 자기조절은 노력이나 의지력 및 인내와 같은 개념들이 핵심적인 의미를 구성한다고 밝힌 Park (200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제1유형이 한국의 간호대 학생이 인식하는 성공적 삶의 태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때, 한국의 대학생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감내하는데는 성공이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Park & Kim, 1999)는 한국인의 토착심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m과 Park (1997)은 성공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 및 인내와 같은 자기조절은 목표 성취 상황에서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으로 대표적인 개념임을 피력하여 제1유형을 통해 간호대 학생이 목표 성취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음을 예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유형의 목적 달성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토착문화와 사회, 경제적 발전 과정에 따른 현대 한국인의 성격과 보편적 사회가치를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국인에게 노력의 여부는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노력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가 내면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Yu와 Yang (1994)은 유교문화권에서의 노력에 대한 강조, 훈련, 근면함, 절약, 희생정신, 교육열, 성취, 권위에 대한 존경은 경제적인 성공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Jung (1971)에 의하면 교육은 각 집단 특유의 행동과 사고방식의 존재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사회 구성원의 성격적 특성을 규정하는 요인이라고 했는데, 결국 제1유형의 태도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습된 습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제1유형을 위해서는 신인류 세대의 특징적 이미지로 부각되는 진솔한 자기표현과 개방을 통해 기존에 형성된 사회적 가치와의 비교와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우선적 단계는 삶의 방향과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합리성과 개방적 분위기 조성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제2유형은 소명 충실향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성공에 대한 인식을 자아 발전이나 목표 달성보다는 절대자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는 신념을 소지하고 이를 충실히 따르며 사는 삶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Jun과 Yim (2001)의 연구에서도 간호 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의 이미지를 100점 만점에 높은 점수의 순위대로 보면 희생과 봉사가 62.3점, 환자가 55.2점, 나이팅게일이 50.1점의 순으로 나타나 간호직을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나이팅게일의 후예로서 헌신적이며 자기를 돌보지 않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천사적 이미지를 표출하여 본 연구의 제2유형과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유형 2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 대상자는 “각 사람이 인생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아가는 것 같다”는 말로 소명의식을 전술하였다.

성공의 이미지는 단일한 경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영향에 따라 재구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Park (2000)의 주장을 고려할 때 제2유형의 대상자들의 성공적 삶의 태도는 지금까지의 학습과 사회적, 종교적 가치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전공 과목인 간호 학문에 대한 만족과 수용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2유형을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시대적, 문화적 관점과 간호의 이미지에 관한 지속적인 의미의 재해석과 관련성 규명을 통해 새롭게 구성됨을 인식할 필요성에 제기된다.

제3유형은 균형 유지형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만족감의 조화를 이룬 삶을 성공의 최고 지표로 삼았는데, 이들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 중 어느 한 쪽의 편견이나 포화상태를 배제하고 모자람 없이 넉넉한 조화를 이룰 때를 성공적 삶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Cha와

Kim (2000)은 성공을 위한 인간적 노력에서 균형은 복지사회와 인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Fromm (1976)은 「소유나 존재냐』에서 소유의 삶에 대립하는 존재의 삶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완성하는데 목적과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여 오늘날 산업사회에서의 삶의 타락과 세속화에 의한 정신의 상실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제3유형이 타유형에 비해 가장 동의한 부분 역시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만족감이 조화를 이룬 삶,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으로 나타났는데 제3유형의 대상자들은 물질과 정신세계,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겸비한 삶을 성공지표로 표출하여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 생각되나 경제적 풍족성에도 또한 강조점을 두어 성공의 가치를 양분화시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입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Koh (2002)는 행복은 물질을 소유하고 즐기는데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인간의 본질적 존재 구조에 일치하는 삶의 활동에 의한 잠재적 가능성을 생산적으로 발휘하는 삶의 방식에 있다는 견해를 보여 소유의 가치보다는 존재의 가치를 더 우선시함을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제3유형의 대상자들의 간호학문에 대한 만족감이 타 유형에 비해 낮은 것과 평점평균이 그룹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전공학문 선택에서 물질적 행복과 성공의 수단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제3유형의 대상자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관련된 가치 체계에 집착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보다는 전문직 능력을 최적화하여 주관적 만족을 이끌어냄으로써 정신적 부와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계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4유형은 행복 추구형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성공적 삶에 대한 태도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으로 보았다.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다고 하는데 (Park, Kim, & Tac, 2005), 행복한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공하는 것이기에 가정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성인들은 일생의 가장 고통스런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Park, 2000). 제4유형의 대상자들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성공적 삶의 최고점에 두었는데 이들의 가치관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목표 의식 속에 가족주의 가치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관련 가치의식에 있어 세대 집단별 차이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제4유형의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22번 대상자는 “내게 있어 성공은 돈이나 출세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라고 진술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경향은 대부분의 한국 사

람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Kim, Park, Kim, Lee, Yu (2000). Park 등(2005)의 연구에서도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은 청소년의 경우에 취업과 학업 성취였으며, 성인의 경우에 행복한 가정 생활로 나타나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Park과 Kim (1999)의 연구에서 행복한 가정은 원만한 가정, 가족의 성공, 건강, 자녀의 교육적 성취, 결혼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인의 전통적 여성상과 혈연중심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4유형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통한 전문 직업관의 재조명이 요구된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태도가 미래에 얻게될 전문직 직업관과 관련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과 성공 수단으로서의 직업관에 관한 윤리적 가치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 및 간호전문직관의 함양이 요구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제1유형(목적 달성형)의 대상자들은 간호학 선택의 동기, 간호 학문에 대한 만족도, 평점평균, 집안의 경제 상태, 종교, 조언자, 그리고 장래 희망하는 직업 모두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제2유형, 3유형, 4유형에 속한 대상자들 간에는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제2유형(소명 충실향)은 구성원 모두가 종교를 가졌으며, 제3유형(균형 유지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평점평균이 3.68로 그룹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집안의 경제적 사정도 타 유형에 비해 좋지 않았다. 한편 제4유형(행복 추구형)의 대상자들은 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는데,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는 대상자들 전원이 ‘취업이 잘 되어서’라고 했으며 간호학문에 대한 만족도 역시 구성원 전원이 ‘높다’로 대답하였고, 평점평균 또한 3.9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집안의 경제 상태도 타 유형에 비해 좋은 편이었으며 장래에 관한 조언과 대화는 주로 ‘부모로부터’라고 답하였고 장래 희망도 다양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목적 달성형(1유형)은 일반적 특성 변수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평범한 분포를 보여 보편적으로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태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대두되어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행복 추구형(4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가정의 유대와 지지가 학업과 연관되며 좋은 성적으로 취업을 하여 안정적 삶을 형성하는 것을 성공적 삶으로 연결하여 한국 사회 여성의 성공 태도를 토착심리적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 삶에 대한 간호대 학생의 태도는 전체의 55.3%를 설명하였으며 나머지 44.7%는 위의 네 가지 유형 이외에 한국인의 토착 문화와 사회, 심리적 변수를 포함한 개별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간

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 삶의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비교 연구가 어려웠으나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간호대 학생의 성공에 관한 인식은 개별적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태도로 밝혀졌다. 따라서 간호 전문직과 개인적 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간호 학생으로 하여금 자아실현 할 수 있는 간호 교육과정의 유연한 전환과 실천적 제안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공적 삶에 대한 한국 간호대 학생의 인식 구조와 유형을 분류하고 파악하여 성공적 삶에 관한 태도 유형에 따른 교육 방법의 방향 제시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태도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이며 관련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된 항목들을 종합 분석하여 최종 32개의 Q표본 진술내용을 1개 대학 간호대 학생 36명에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으로 요인 분석하였고, 분류된 성공적 삶의 태도 유형은 모두 4 가지(목적 달성형, 소명 충실향, 균형 유지형, 행복 추구형)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55.3%였다.

제1유형은 '목적 달성형'으로 젊음의 꿈과 목표 성취를 위해 매진하는 노력파임을 보여주었고 제2유형은 '소명 충실향'으로 간호 전문직을 통해 배려하는 삶의 실천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종교적 신념의 구현으로 표현하였으며 제3유형은 '균형 유지형'으로 성공의 지표를 물질과 정신 모두의 균형적 총족으로 보았고 제4유형은 '행복 추구형'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간호 학생의 성공적 삶을 위한 교육방법적 반영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별 접근이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목적 달성형'의 특성을 지닌 대상자들에게는 목적 달성의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천적 사례접근을 통한 성공의 모델 제시가 요구되며, '소명 충실향'에 속하는 대상자들에게는 간호 전문직 발전의 변천사를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전문직관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균형 유지형'을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의 가치 배분의 정도에 따른 개인의 조절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행복 추구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에게는 한국의 혈연 중심의 문화와 관련된 이슈를 개인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간호대 학생이 소지한 성공적 삶에 관한 태도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

호대 학생을 위한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교육 방법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대한 태도 유형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 연구 대상자를 표집하여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태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방법의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Cha, D. K., & Kim, K. H. (2000). *Professional ethics and personality of the Koreans*. Daegu: Junglimsa.
- Fromm, E. (1976).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 Han, J. S. (1988). The university student's fear of success and its variables. *J Asian Women*, 27, 77-102.
- Hwang, S. M. (1999). An estimation of generation and future society's personality through life cycle. *Phenomenon and cognition*, Winter, 100-118.
- Jun, H. Y., & Yim, H. B. (2001). A study on the image of nursing in the nursing students. *Bulletin Dongnam Heal College*, 19(2), 71-77.
- Jung, C. G. (1971). *Psychological typ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K. (1991). *The effect of self-concept, ego-identity,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on career decision ma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unkuk University, Seoul.
- Kim, H. G. (1992). Understanding of Q-methodology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Seoul Univ Nur Inq*, 6(1), 1-10.
- Kim, U. C., & Park, Y. S. (1997). Stress experience, result of coping and adoption: indigenous psycho-analitical approach. *Korean J Health Psychol*, 2(1), 96-126.
- Kim, U. C., Park, Y. S., Kim, M. E., Lee, G. U., & Yu, H. S. (2000).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and life satisfaction: comparative analysis of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Korean J Health Psychol*, 5(1), 119-145.
- Kishor, N. (1983).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ethnic discrepancies among Fijians. *J Cross Cult Psychol*, 14, 299-308.
- Koh, H. J. (199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oh, I. H. (2002). Life and professional view. *Collection of Articles Humanities and Art*, 23, 1-9.
- Korean languag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2006). *Korean*

- language dictionary*. Seoul: Samsungmoonwhasa.
- Lee, H. R., Choi, K. O., Koh, J. E., Hong, M. R., Kim, S. Y., & Shin, H. S. (1992). The study on nurses' image. *J Kyunghee Nurs*, 15, 45-65.
- Lim, Y. J. (1994). *A study on effects of sex-role related factors on career choi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Park, Y. S. (2000). Indigenous analysis of achievement and attributional style: a Korean perspective. *Korean J Psychol Soc Issues*, 6(3), 67-98.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Education Journal*, 27(1), 91-120.
- Park, Y. S., Kim, U. C., & Tac, S. Y. (2005). Failure experience and aspirations for the futur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Korean J Psychol Soc Issues*, 11(2), 73-108.
- Patterson, C. H. (1980). *Theories of counseling psycho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Stephenson, W. (1982). Q-Methodology, interbehavioral psychology and quantum theory. *Psychol Rec*, 3, 238-248.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239-250). Thousand Oaks, CA: Sage.